

25.05.29.(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미래소비자행동,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21세기형 소비자 보호정책’ 제안 … “소비자청 신설과 소비자법 전면개정 통해 디지털시대 소비자 권익보호 시급”

오늘(5/29)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에 ‘21세기형 소비자보호 정책제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식은 AI,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등 21세기형 소비환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션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고흥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전문위원), 강경구 전문위원 등 전문가와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측에서는 민병덕 위원장과 김현국 을지원국 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소비자청 신설, 21세기 소비자 문제 대응 위한 핵심 과제”

정책제안 설명은 고흥석 교수가 맡아, 제안배경과 제도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중심 조직으로 소비자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구조”라며 “AI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시대에 소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독립 소비자행정기구, 즉 ‘소비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9년 소비자청을 출범시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 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문 법 제정 … 소비자법 체계 전면개편 필요”

이미션 공동대표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현행 소비자법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는 단일법률 중심 백화점식 규율이 아니라 소비자안전법, 소비자계약법, 소비자소송법, 소비자교육법 등 분야별 전문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며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가 주류가 된 상황에서 현행 법률은 소비자 보호보다는 사업자 면책에 치우쳐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법체계 전면개편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고 덧붙였다.

민병덕 위원장 “낡은 법으로 21세기 소비자 못 지켜 … 소비자정책 보완해야”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민병덕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머지포인트, 티몬, 발란, 그리고 유심해킹까지 수백만 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우리 법이 이미 시대에 뒤쳐졌음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소비자법은 20세기 거래환경에 맞춰진 낡은 법으로, 디지털·플랫폼·글로벌 시장이라는 21세기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소비자와 경쟁을 다 본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만 챙기고 소비자는 놓치고 있다.” 며 “소비자정책은 부처 내의 한 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 위원장은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왕인가? 외국 소비자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는 위치가 더 취약한 것 같다.” 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과

제도가 자리잡아야 소비자와 안전을 위한 기술에 투자한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들을 을지로위원회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입법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더는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가해자가 면책조항 뒤에 숨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